"백년만에 전모 드러낸 한국지성사"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 완역한 이희재교수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줄곧 그 학문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온 모리스 쿠랑의 「韓國書誌」가 출간된 지 100년 만에 이희재(李姬載,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교수에 의해 완역, 출판(일조각)되었다.

「한국서지」는 고려시대의 「古今詳定禮文」에서 조선말의 「한성순보」에 이르는 3821종의 도서를 敎誨·言語·儒敎·文墨·儀範·史書·技藝·敎門·交通 등의 9부로 분류하고, 상세한 서지학적 정보는 물론 문화사적 비평까지 담고 있는 '한국의 서지(National Bibliography)'다.

원문 찾아 일일이 확인수정 거쳐 수록

"모리스 쿠랑은 프랑스 출신 동양학 학자로서 「한국서지」에는 13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우리 민족이 펴낸 도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리스 쿠랑은 통역관으로 한국에 머문 2년동안 한국의 점방과 개인 소장자, 그리고 기존의 문헌목록 등을 통해 도서 확인작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귀국후에는 파리의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동양어학교 도서관, 기메(Guimet)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일본의 增上寺와 우에노 도서관을 그야말로 이 잡듯 뒤져 우리의 전적을 찾아 목록에 첨가하였습니다. 서지학을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은 방대한 작업을 벽안의 동양학자가 1세기 전에 완성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그 책이 지금껏 우리말로 완역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심 부끄러웠습니다."

이 교수가 「한국서지」를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부터다. 마침 파리 7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활자인쇄」를 프랑스 국립학술원에서 출간한 직후여서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동안 때가 오기만을 벼르고 있던" 「한국서지」의 번역작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한국서지」의 번역은 쉽지 않았다. 이 책이 19세기 특유의 어법으로 씌어 있다거나, 문장이 너무 길어 우리말로 옮길 때 의역을 각오하고 단문으로 바꿔야 했던 것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번역 속도를 늦춘 걸림돌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이 교수 자신의 '완벽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교수는 먼저 쿠랑이 원문을 인용한 경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문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곱절의 시간과 공이 들더라도 원문비교라는 '만리장성'을 넘기로 했다. 또한 쿠랑이 소재처를 밝힌 책의 경우 1세기가 지난 오늘에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요구되었고, 기왕 진행하는 작업이라면 관련학자들과 후학들을 위해 청구번호까지 새로 첨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희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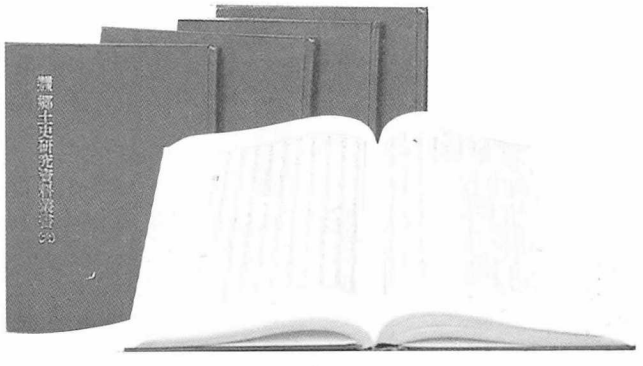
「한국서지」를 번역하던 지난 5년간을 "쿠랑과의 열애 기간"이었다고 실토할 만큼 이교수는 심혈을 기울였다. 1세기 전 세계사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한국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인 쿠랑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지니게 됐다는 고백이다.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고 원문은 일일이 찾아 수록, 이 책은 '수정번역판'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번역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그 첫단계는 단순번역작업이었고, 두번째 단계는 각 도서의 소재확인을 위한 실사작업이었다. 쿠랑이 걸은 길을 되짚어가는 이 부분은 이 교수에게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했다. 방학이 시작되면 만사 제쳐놓고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책의 소재를 재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쿠랑이 소장처를 밝히지 못한 전적의 확인작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쿠랑이 밝힌 소재처의 90%를 차지하는 파리국립도서관, 기메 박물관, 동양어학교, 대영박물관, 그리고 국내의 규장각과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전적은 거의 대부분 확인하여 청구번호를 번역본에 실었다.

嶺東지역 특성 이해할 향토사 자료 집대성

영동문화연구소 엮음 「영동지방 향토사 연구자료총서」



지방문화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소장 방동인)에서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전6권)를 발간, 향토사학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 89년 제1권 「계-향약·기타」 자료집이 나온 후 5년여만에 한꺼번에 선보인 이번 자료총서는 흩어져 있는 방대한 관련문헌을 총망라, 영동지역의 특성과 문화형성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2, 3권은 강릉·삼척지방의 서원과 학교에 관한 자료집으로 「오봉서원실기」 「강릉향교실기」 율곡의 「학교모범」 「화산학교잡록」 「용산서원지」 등의 문적이 실려 있다. 이들 자료는 당시 영동지방 향촌사회의 교육과정과 내용, 새 교육기관의 설립취지 역사적 이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교육 전반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권은 주로 토지 재정에 관한 문헌자료를 모았다. 삼척지방의 「전결대장」과 「신정기군포등록」 등은 조선후기 토지 소유관계와 소유형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강릉·삼척부가 백성으로부터 수취한 내용과 액수를 빠짐없이 기록한 현황표는 19세기말 이 지방의 수입지출 현황은 물론 이 시기 지역민 부담에 관한 연구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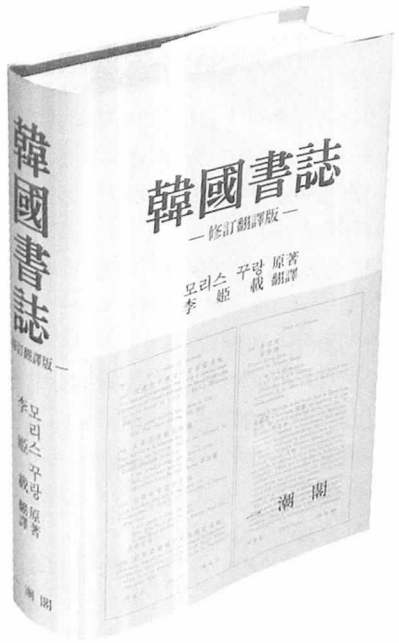
또한 5권에는 1881년 문호개방과 정부주도형 개화정책에 대해 강렬하게 올렸던 「상소문」과 「위척록」 등을 실어 당시 강릉지방 유학자들의 의식성향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이밖에 「문헌통고」 등은 강릉부의 대과 및 생원진사시에 급제한 이들의 명단으로 당시 향촌사회의 인물록이라 할 만하다.

강릉지방의 읍지를 실은 6권은 오늘날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증수임영지」 「동호승람」 「강릉군지」 등 강릉지역 지리지를 모아 엮었다.

이 가운데 「화산학교잡록」이나 「위척록」 같은 문헌은 근대화 물결을 맞아 동양권과 서양권의 교육 및 문물교류가 어떻게 맞부딪치고 뒤섞였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오늘날 세계화의 또다른 개방체제를 앞둔 우리에게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준다.

한편 강릉지역 선인들의 문집 30여권과 금석문의 상당자료를 개인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동인교수(관동대 사학과)는 "고문서와 전적에 속하는 이번 자료들을 꽤 오랫동안 수집해왔으며 앞으로 향토사연구총서를 꾸준히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동대부설영동문화연구소 / B5 / 각 400면 내외 / 비매품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한국서지」에 실린 도서들의 원문비교였다. 이 작업을 통해 쿠랑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았고, 쿠랑이 옮겨 적은 원문 부분은 쿠랑의 것을 번역하지 않고 일일이 원문을 찾아 수록했다. 이 책의 번역본이 '수정번역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교수는 5년간의 번역작업을 마친 다음에도 책이 나오기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여러 종류의 문자, 숫자, 부호를 처리해야 하는 조판상의 난점 때문에 여느 책보다 편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출간이 늦어져 속이 상하기도 했는데, 어떤 '섭리'인지는 몰라도 1894년 東京築地活版製造所에서 「한국서지」 1권이 출간된 지 꼭 1백주년 되는 해에 책이 나오게 되어 오히려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5년은 "쿠랑과의 열애기간"

어느 자리에선가 이 교수는 지난 5년간을 "쿠랑과의 열애 기간"이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그만큼 「한국서지」를 번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며, 1세기전 세계사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한국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인 쿠랑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국서지」의 가치는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活字印本인 「佛祖直指心體要節」을 발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의 기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문적 가치가 큰 책을 번역하면서 쿠랑이라는 학자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지요.

쿠랑이 당시 주한 프랑스 총영사 겸 주재공사였던 빅토르 콜렝 드 플랑시의 후원아래 「한국서지」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그토록 풍부하고 다양한 한국의 문헌편찬에 대한 세계인들의 무지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쿠랑이 선구적으로 한국학의 초석을 다져주었기에 오늘날 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가 「한국서지」를 번역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쿠랑의 학문적 열정이었다. 쿠랑은 「한국서지」가 단순한 도서목록 차원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쿠랑은 중국과 일본에 가려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지적 특성과 극동문화권 내의 위상을 밝혀내려 했다. 쿠랑은 서지학이라는 촉수를 통해 한국 지성사의 광맥을 캐내고자 한 것이다. 그 지난한 학문적 탐사 끝에 쿠랑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극동의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어서, 만일 그 상황이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국가들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자만과 국가관에 의해 쌓여진 장벽은 그보다 높았고 과거에 대한 숭상은 정체만을 가져왔다."

서지학 분야 외국박사 1호

이 교수는 학부시절 부친의 영향으로 역사학을 전공하였다. 틈틈이 익힌 불어실력 덕분에 대학졸업후에는 합동통신사 외신부 기자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하루종일 텔렉스만 바라보기가 지겨워 '업종전환'을 꿈꾸고 있을 때, 한 친지의 권유로 서지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무작정 프랑스로 떠났던 이 교수는, "그 만용 덕"에 서지학 분야 외국박사 1호가 되었다.

이 교수는 재야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서지학 풍토에 대해 냉소적이다. 무엇보다 서지학의 한 분야에 속하는 고서취미가 서지학의 전부인양 과대포장되는 세태를 염려하고 있다. 국내 서지학의 우선 과제로 "학문적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교수는, 곧 「도서의 문화와 역사」 「서지학의 연구방법론」 등속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권우〉

교정 · 편집 전문회사

삼연편집실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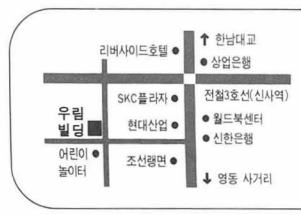
어쩌다 만난 좋은 책 한 권은
어쩌다 만난 좋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일생을 영롱한 꽃밭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벅차고 힘든 세상이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간혹 터질 듯한 기쁨으로
온몸이 떨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들었던 많은 책들을 떠나 보내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원고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는 것은
이 또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처녀의 뜨거운 열정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책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Rewriting.
교정 : 辭(事)典類 · 漢書 · 문학 및 학술 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용 PC	7대
레이저 프린트기(300dpi, 600dpi 등)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Express-31p)	1대



三硯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 549-6883~5 팩스 · 모뎀 : 515-1453